

중국의 동북공정 음모 및 대응방안

(2013. 11. 29)



우리역사의 비밀 (www.coo2.net)

* 경고 : 매식자들이나 민족사학 복원을 방해하고 피해를 입히는 불순한 자들의 자료인용은 불허 합니다.

- 목 차 -

1.	중국의 동북공정 이란 ?	1
2.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역사	
	1) 한국	4
	① 일제의 역사왜곡 현황	4
	② 구체적 역사왜곡 두가지	6
	2) 중국	10
	3) 일본	11
3.	새로 밝혀지고 있는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역사	
	1) 한국	13
	2) 중국	18
	3) 일본	18
4.	중국의 동북공정 실체	19
5.	동북공정 대응방안	28
6.	맺음말	29

본 강의자료는 우리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이문자(속칭 한자) 사용은 자제하였으며, 본 교재를 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 및 주변에 설명·전파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가 중국의 우리역사 침탈전략인 동북공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위대하였던 일만년 천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

동북공정은 중국정부가 2002년 시작하여 2007. 2월 종료한 바 있는 국가 전략 핵심사업으로 현재는 길림성 지방정부 등으로 이관되어 더욱 심도있게 진행중에 있다.

* 재미 이홍범 박사는 신간 `아시아 이상주의` 출판기념회에서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 사업에 앞으로 5년간 6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주장 (2010.4.5 기사)

동북공정의 핵심은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라는 연구조직을 통하여 중국의 변방지역인 만주지역 즉 동북삼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일어난 고구려 역사는 중국땅에서 일어난 역사이므로 중국역사라는 주장이다.

* 동북공정(東北工程) :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라는 말이다.

- 邊疆(변강) : 邊境(변경), 邊方(변방), 나라의 경계(境界)가 되는 변두리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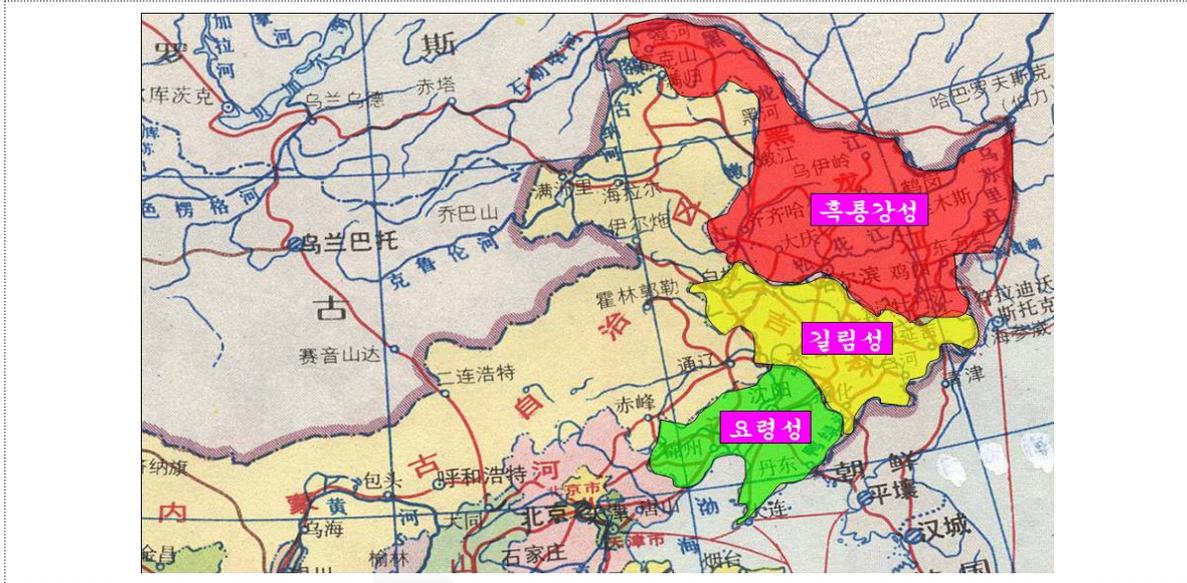
처음에는 고구려 역사 편입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고구려 역사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이전·고조선·발해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연구하는 구체적 연구 과제를 보면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동북변강 안정에 대한 영향 연구'등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단순히 고구려 역사 침탈야욕만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으며, 그 이전 단군조선의 역사까지도 침탈하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중국정부가 왜 이러한 동북공정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 3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동양 3국의 상고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동북공정의 본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동북삼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2.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역사

한·중·일 역사 비교연표

○ **한국 : 기원전 2333년 ~ 현재** (단기 4346년)

B.C 2333	1122	194	108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108~AD313)

○ **중국 : 기원전 2205년 ~ 현재** (4218년, 우리보다 128년 짧다)

B.C3500	2205	1766	1122	770	221	206	
삼황오제	하	은	주	춘추전국	진	한(전·후)	(206~220)

○ **일본 : 기원전 660년 ~ 현재** (2673년, 동양삼국중에 제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B.C660

	왜(660~AD670) ~ 일본(AD670~현재)
--	-----------------------------

1) 한국

B.C 2333	1122	194	108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108~AD313)

우리나라 역사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하여 4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제의 역사왜곡과 그들에게 부역하고 교육을 받은 식민사학자들의 영향으로 고조선은 현재 신화로 치부되고 있다.(식민사학자 : 일제가 조작한 역사를 전파하는 사학자로 친일식민사학의 원흉 이병도, 신석호 제자들을 주로 말한다)

그래서 고조선은 신화에 불과하니 우리민족은 동양삼국 중 2천여년의 가장 짧은 역사를 가졌고,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3~4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가형태를 갖춘 아주 보잘 것 없는 역사로 알고 있다.

비록 2007년 뜻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과서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개국사실을 수록하여 고조선이 실제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되었지만, 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는 여전히 단군은 신화라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일부 식민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고조선 개국사실이 수록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화가 실제한 역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시 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고조선을 신화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하니 가히 그들의 국적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여기서 일제가 어떻게 우리 역사를 말살하였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야만 역사왜곡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으니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일부만 언급함을 이해바랍니다. 추후 추가 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① 일제의 역사왜곡 현황

일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땅을 강점하여 통치하였다. 강점기간중 일제가 우리의 상고사를 날조·조작한 중요한 이유는 단 한가지, 이땅을 그들의 역사보다 짧은 역사로 만들어 영원한 통치를 획책한 것이다.

※ 강점기간 : 1910 ~ 1945년, 35년간이지 36년간이 아니다. (14일이 모자란다)

즉 일본은 기원전 660년에 1대 신무(神武)천왕이 일본(왜국)을 개국하여 현재 125대 아키히토(繼宮) 천황까지 2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땅을 통치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를 보니 일본보다 무려 2천여년이나 더 긴 4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는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말살하여 자기들의 역사보다 짧게 만드는 작업이 선결요건이라 보고 역사조작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역사왜곡 의도는 1925년 일제 사이트 총독이 전국에 시달한 교육시책에 잘 나타난다.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의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서 그 부조(父祖)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史蹟)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 사적,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同化)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1925년 6월에는 ‘일황칙령’으로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조작하게 되는데, 1938년 3월 35권의 ‘조선사’를 출간하므로써 우리 역사 조작의 틀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주도적으로 단군조선 신화화 등에 앞장선 인물은 일본인 금서룡(今西龍), 조선사람 이병도(수사관보), 신석호(수사관보) 3인이다.

*** 3인의 행적**

- 금서룡 : ‘단군교’ 라는 단군신화설 등을 만들다 일본으로 돌아가 원인모를 급살을 맞아 비명횡사
→ 1913년 하북성에 있는 점제현신사비를 평남 온천군으로 옮겨 역사를 조작한 장본인
- 이병도 : S대 사학과, 식민사학의 모태, ‘89년 사망 (제자 : 이기백, 이기동, 송호정 등)
- 신석호 : K대 사학과, 식민사학의 모태, ‘81년 사망 (제자 : 김정배, 최광식 등)

주요조작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사 말살 및 조작’이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말살하여 단군은 신화일 뿐 이를 역사로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역사왜곡이고, 중국의 속박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보잘 것 없는 민족이라 비하를 하였다.

즉, 단군왕검의 건국설은 신화일 뿐이고 한반도는 기원전 1122년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기원전 194년까지 중국사람 기자가 통치한 ‘기자조선’으로 존재하다가, 기

원전 194년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 중국사람 위만이 통치를 한 '위만조선'으로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하다가,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게 나라가 망하여 한반도 내 '한사군'이 설치되어 303년까지 지배를 받다가 겨우 독립한 중국의 예속국가 였다고 조작을 하였다. 길어야 겨우 2000여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고대강역의 축소'이다. 우리역사는 기원후 3~4세기에서야 겨우 국가의 틀을 갖추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으로 한반도를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보잘것 없는 민족이라 강역을 축소시켰다.

셋째는 '민족비하'이다. 우리민족은 항상 침략만 받아온 민족이며 '갈등, 분열, 시기' 등 안좋은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교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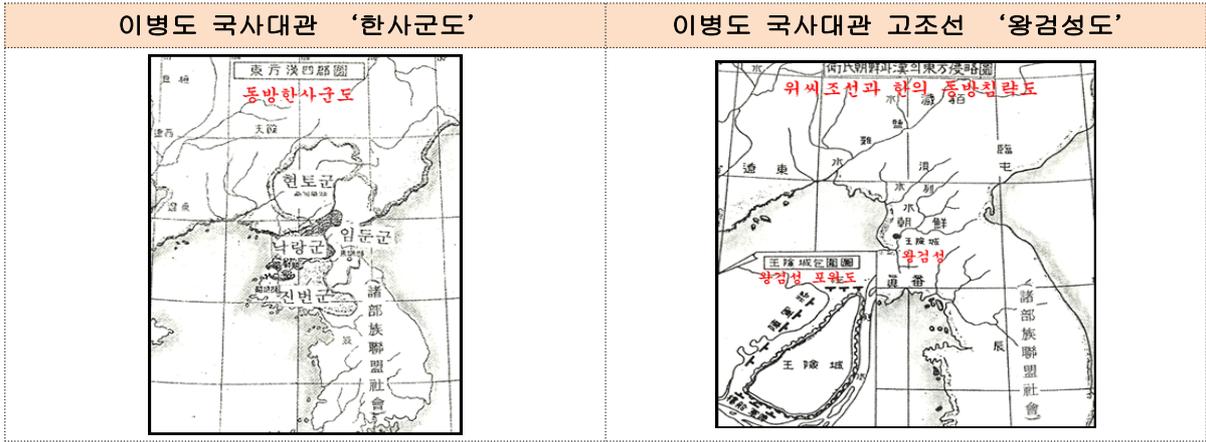
그래서 일제는 일제강점기간 동안 전국을 수색하여 단군관련 사료 등 고사서 51여종 20여만권을 수거하여 불태웠고(1985년 10월 4일 이상시 변호사 조선일보에 폭로), 일부는 일본으로 가져 갔으며 단군신화설에 도움이 될 '삼국유사, 삼국사기' 단 2권만 남겨놓고 모조리 수거하여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제헌국회사, 군국일본조선 강점 36년사)

그러나 일제가 조작한 단군신화설 등은 사실이 아니다.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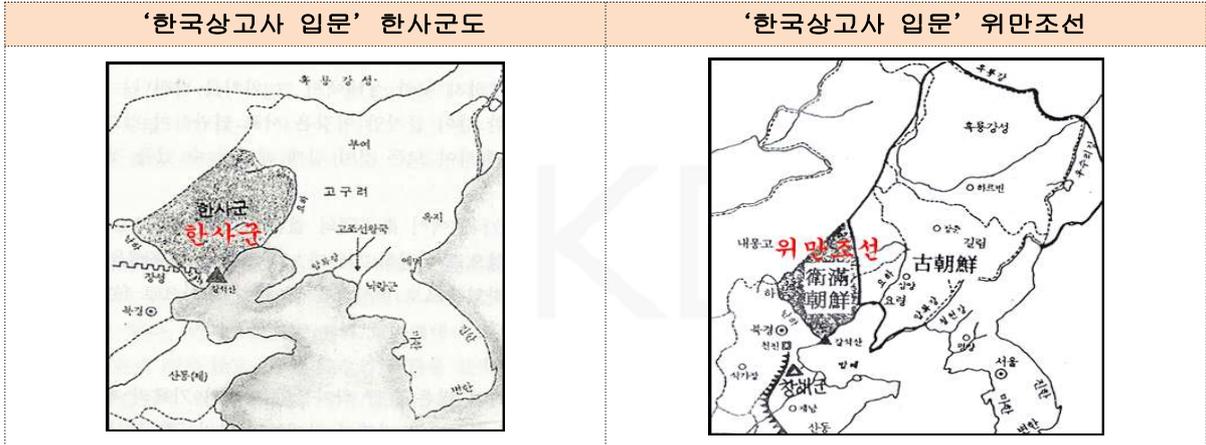
② 구체적 역사 왜곡사례 두가지

너무나 많은 역사왜곡 사례가 있지만 두가지만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한사군의 위치 왜곡이다. 한사군 사건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가 수륙양군으로 한반도 평양유역에 있는 고조선의 왕검성을 침공하여 함락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거짓말이다.(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금서룡, 조선인 이병도, 신석호가 조작하여 조선사 35권에 담은 내용이다)



일례로 역사왜곡의 주역인 이병도 박사가 죽은해인 '89년도에 '한국상고사입문'(최태영, 이병도 공저)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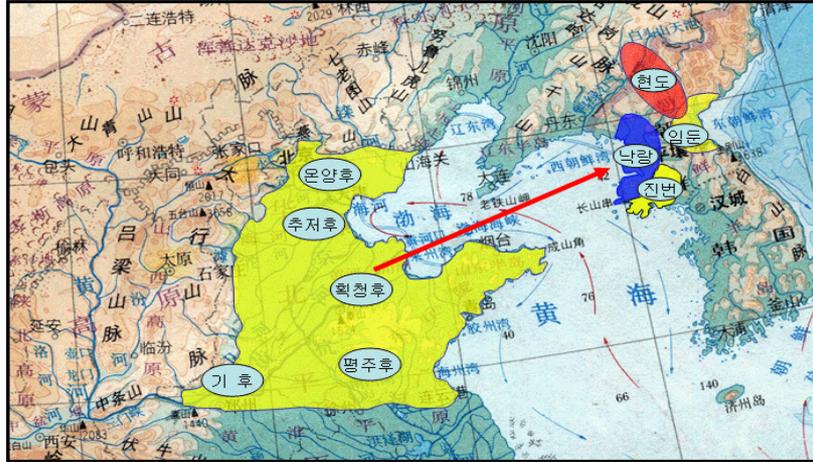


한사군은 한반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국 하북성 난하 유역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양심고백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우리 스승이 노망들어 헛소리 한 것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여전히 한반도내 한사군설을 주장한다.

(공저자 최태영 박사는 사단법인 한배달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병도 설득하여 민족반역자의 오명을 죽기전에 벗어나게 해주었다’. ‘지들 스승[이병도]을 욕할 수 없으니 나를[최태영]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한사군 전쟁이 기록된 중국의 정사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사군의 강역이 중국대륙으로 나온다.(구리넷 발간 사기조선열전, 2008년 발행, 비매품) 중국사서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내용을 지도에 옮기면 다음과 같은 지도가 나온다.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조선 5군의 올바른 위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영터리 역사를 일제가 몰러간지 68여년이 지났는데도 가르치는 것일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 한사군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 사이트에 해설본 전편을 공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선사편수회 총책이었던 일본인 금서룡(今西龍)이 조작한 '점제현신사비'이다. 이 비는 한나라 시절 낙랑군 점제현에 있었다고 하는 비인데 중국 하북성 창려유역 갈석산에 있었던 비를 평안남도 온천군으로 배로 실어와 여기가 한나라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라 역사를 조작하였다.

(손보기 교수가 사단법인 한배달 인터뷰에서 증언 하였다 : 서울대 사학과졸, 前 문화재 위원)

유물 조작을 위한 이동경로



온천앞바다로 이동후 찍은 사진





북한 사회과학원은 '핵분열 측정법'으로 비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다른 지방에서 이전해 온 화강암이라는 결과를 수록한 논문을 발표하고, 1995년 5월에는 '점제현신사비'가 일제 어용사가들이 날조한 '날조품'이라 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전히 이 날조품을 근거로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도대체 말인가?

2001년 국광복회 최재인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하고 있는 낙랑유물 특별전의 부당성을 질의하자 8월 1일자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간의 발굴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사학계의 여러 개설서에서 보다시피 낙랑군 재평양설이 일반적 통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학계 현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답변내용(일부)

3.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 이래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간의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 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사학계의 여러 개설서에서 보다시피 낙랑군 재평양설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2001년 11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 의원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한완상 부총리에게 공식 질의를 하자, 답변서에서 '현행 학계에서 한사군의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견해는 거의 없으며...'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대학에서는 일제 식민사관 그대로 한반도 한사군설이 정설이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땅에 역사학자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한완상 부총리 답변내용

- 현행 학계에서도 한사군의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견해는 거의 없으며, 특히 현도군이나 낙랑군의 경우 시기에 따른 이동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이것은 우리가 눈감고 앉아서 한강이북을 한나라에게 통째로 내주는 무식한 역사조작행위를 우리네 학자들이 앉아서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일제가 '반도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해 일제 35년 동안 역사를 조작한 결과물이다. 해방된지 68여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일제의 조작된 역사를 교육 받으며 우리의 희망인 2세들이 자라고 있다.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

2) 중국

B.C3500	2205	1766	1122	770	221	206	
삼황오제	하	은	주	춘추전국	진	한(전·후) (206~220)	

중국은 기원전 3500여년전부터 삼황오제의 역사가 시작되어 5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선전하지만, 실제 삼황오제는 신화의 역사로 그동안 치부하였고 최초의 국가형태는 하나라 부터이다. 뒤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의 삼황오제의 역사는 우리역사 일부를 차용해 간, 즉 우리에게서 분가해 나간 작은집의 역사에 불과하다.

중국역조제왕개람에 나오는 삼황오제

구 분	이 름	시 기	비 고
삼황	태호 복희	B.C 3500년대	배달국 5세 태우의 한응의 12아들중 막내아들
	염제 신농	B.C 3200년대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응때 신하였던 소전의 아들
	황제 헌원	B.C 2698~2598	배달국 14세 치우한응때 제후의 아들로 소전의 먼 후손
오제	소호 금천	B.C 2598~2515	헌원의 아들
	전욱 고양	B.C 2514~2437	헌원의 손자
	제곡 고신	B.C 2436~2367	헌원의 증손자
	제요 도당	B.C 2357~2284	고신의 막내아들
	제순 유우	B.C 2284~2224	장님인 고수의 아들, 부도지에는 유소(有巢,有戶氏) 장남

중국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는 단군조선보다 128년 늦게 개국되어 우리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황오제의 역사를 앞부분에 삽입하여 우리보다 긴 역사로 조작을 하였다.

또한 완전한 독립국이었던 고조선의 역사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주무왕이 봉하였다고 하는 기자조선, 연나라 사람 위만이 통치한 위만조선,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등으로 역사를 날조하여 고조선이 중국에 예속한 역사로 만들어 버렸다. 중·일 합작 역사날조다.

	B.C 2333	1122	194	108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108~AD313)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다르다. 최근 새로 발견된 민족사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 아니라 일만년천년 천손민족의 역사라는 것이 밝혀져 중국의 역사가 우리의 방계역사 임이 증빙되고 있고(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의 저서 '나라역사육천년'에서도 밝힌바 있음), 중국의 동북공정도 저들이 스스로 조작한 삼황오제의 역사가 밝혀질까 두려워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한 것이며 단순한 고구려사 침탈야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일본

B.C660

	왜(660~AD670) ~ 일본(AD670~현재)
--	-----------------------------

사실 역사적 연원으로 볼 때 보잘 것 없는 일본의 역사는 고려대상도 아니다. 2600여년의 역사가 4300여년 역사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일본도 우리에게서 분가해 나간 작은집의 역사로 표현하고 싶다.

일례로 일본왕실에서 제사를 지낼때 강신(降神) 축문을 외우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신동아 2002년 2월호 보도내용)

‘阿知女, 於介, 於, 於, 於, 於, 於, 於介’
우리말로 하면 다음과 같다.
‘아지매 오게, 오, 오, 오, 오, 오, 오게’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경상도 사람이 도대체 저게 무슨 뜻 인지는 알고 외우는 거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일본 왕실의 역사가 우리 경상도 아지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우리의 일만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면 저들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다. 집나간 차자가 결국은 돌아 올 곳이 어디이겠는가.

하여간 일본의 역사는 서기전 660년에 신무(神武)천황이 개국을 하여 현재 125대 아키히토(繼宮) 천황까지 2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 35년 동안 저들은 이땅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여 저들의 역사보다 짧은 2천년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 해방후 68여년 동안 우리는 조작된 역사를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역사왜곡의 결과는 반드시 천벌로 돌아간다.

3. 새로 밝혀지고 있는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역사

[표 2] 새로 밝혀진 한·중·일 역사 비교연표

○ 한국 : 기원전 7197년 ~ 현재 (한기 9210년)

B.C 7197	3897	2333	238	58
삼신 (마고)	한국 (7대 3301)	배달국 (18대 1565년)	고조선 (47대 2096년)	북부여 고구려

* 삼신(마고)과 한국시대는 신화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배달국, 고조선 등은 유물유적이 정확히 남아 있어 실제한 역사임을 증빙할 수 있다.
(마고기원 11150년)

○ 중국 : 기원전 2205년 ~ 현재 (4218년, 우리에게서 분가해 나간 작은집의 역사)

B.C3500	2205	1766	1122	770	221	206
	삼황오제	하	은	주	춘추전국	진 한(전·후) (206~220)

* 중국은 단군조선보다 짧은 역사를 감추기 위해 우리의 위인(동이족)들을 차용해가 삼황오제라는 역사를 날조하여 그 기원을 늘려 놓았는데, 조작된 역사가 들통날 지경에 이르자 동북공정 등 각종 공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하여 또다시 은폐하려 하고 있다.

○ 일본 : 기원전 660년 ~ 현재 (2673년)

B.C660
왜(660~AD670) ~ 일본(AD670~현재)

* 호시탐탐 다시 이땅을 지배하기 위해 각종 대학 등에 자금을 무상지원을 하면서 식민사학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끝없는 국권침탈을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일만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조속히 복원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의 일제식민사학의 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척결하여야 역사가 바로 설 것이다.

1) 한국

1945년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인사동 고서점에서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여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1972년 이책을 당시 문화재 위원이었던 손보기, 이가원, 임창순 3인 감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 * 3인의 약력
- 손보기 : 1922년생, 서울대 사학과, 철학박사, 연세대 박물관장, 문화재 위원
 - 이가원 : 1917년생, 성균관대 문학과, 문학박사, 도산서원 원장, 심곡서원 원장, 문화재 위원
→ 국내 문화재 감정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 임창순 : 1914년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문학박사, 문화재위원장, 문화재 위원

‘규원사화는 1675년 조선조 숙종 2년 3월 상순에 북애노인이 기록한 진본이다.’ 이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귀중본실에 보관이 되어 있다.

* 등록번호 : 貴629 - 古2105 - 1, 책크기 24.7 × 16.5cm (‘대출불가’ 도서라 함)

바로 이책에 우리역사는 4346년 아니라 9210년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38년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북애노인이 기록한 진본 규원사화에 이러한 역사가 들어 있다는 말이다. 도표로 표시한 것이 바로 아래 내용이다. (이외에도 한단고기, 단기고사 등 민족사서가 있으나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B.C 7197	3897	2333	238	58	
삼신 (마고)	한국 (7대 3301)	배달국 (18대 1565년)	고조선 (47대 2096년)	북부여	고구려

이 규원사화가 발견된 것이 1945년인데 1972년 문화재 위원 감수를 거쳐 진본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44년만인 1989년 한 민족단체를 통하여 그 사본이 공개됨으로써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본이 있음에도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고 학계에서는 진본이 없는 위서(僞書)라며 그 존재자체를 부인하였는데, 2000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진본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위서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현재는 그 어느 누구도 규원사화가 위서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규원사화 등에 나오는 9210년 역사계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 한국(桓國) 시대 : 7대 3301년간(B.C7197~B.C3897)
 - 12연방국으로 통치,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대국

역대	제왕명	연 대	강역도
1	安巴堅(안파견) 桓仁(한인)	B.C 7197년 ↑ 3301년간 (또는 63182년) ↓ B.C 3897년	
2	赫胥(혁서) 桓仁(한인)		
3	古是利(고시리) 桓仁(한인)		
4	朱于襄(주우양) 桓仁(한인)		
5	釋堤壬(석제임) 桓仁(한인)		
6	邱乙利(구을리) 桓仁(한인)		
7	智爲利(지위리) 桓仁(한인)		

- 배달(倍達)국 시대 : 18대 1565년간(B.C7197~B.C3897)
 - 나라이름 '배달(倍達)', 도읍지 신시(神市), 중국정인 사마천 사기에는 14대 치우한웅이 통치한 나라가 "구리(九黎)"라 기록하고 있음.

역대	제왕명	즉위년도	강역도
1	居發桓(거발한) 桓雄(한웅)	BC3897	
2	居佛理(거불리) 桓雄(한웅)	BC3804	
3	右耶古(우야고) 桓雄(한웅)	BC3718	
4	慕士羅(모사라) 桓雄(한웅)	BC3619	
5	太虞儀(태우의) 桓雄(한웅)	BC3512	
6	多儀發(다의발) 桓雄(한웅)	BC3419	
7	居連(거련) 桓雄(한웅)	BC3321	
8	安夫連(안부련) 桓雄(한웅)	BC3240	
9	養雲(양운) 桓雄(한웅)	BC3167	
10	葛古(갈고) 桓雄(한웅)	BC3071	
11	居耶發(거야발) 桓雄(한웅)	BC2971	
12	州武愼(주무신) 桓雄(한웅)	BC2879	
13	斯瓦羅(사와라) 桓雄(한웅)	BC2774	
14	慈烏支(자오지) 桓雄(한웅) 일명 蚩尤(치우) 한웅	BC2707	
15	蚩額特(치액특) 桓雄(한웅)	BC2598	
16	祝多利(축다리) 桓雄(한웅)	BC2509	
17	赫多世(혁다세) 桓雄(한웅)	BC2453	
18	居弗檀(거불단) 桓雄(한웅)	BC2381	

*** 중국이 차용해간 상황**

- 태호복희 : 5세 태우의 한웅의 12분의 아들중 막내아들이 태호복희
→ 중국이 상황중 첫 번째로 차용해감
- 영제신농 : 8세 안부련 한웅때 신하 소전의 아들이 영제신농
→ 중국이 상황중 두번째로 차용해감
- 황제헌원 : 자오지 한웅(치우 한웅)때 제후의 아들 헌원이 반역하자 응징함
→ 헌원은 소전의 먼 후손인데 상황중 세번째로 차용해감

○ 고조선(古朝鮮) 시대 : 47대 2096년간(B.C2333~B.C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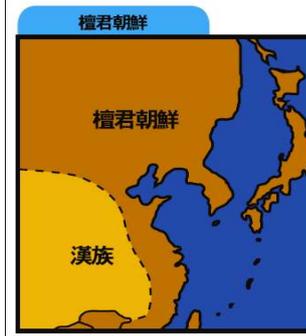
- 47분의 단군이 2096년 동안 통치, 나라는 삼한으로 분치를 하였는데 진한은 단계에서 직접 통치를 하고, 마한과 변한은 각각 왕을 두고 분치

역대	제왕명	즉위년도
1	王儉(왕검)	BC2333
2	扶婁(부루)	BC2240
3	嘉勒(가락)	BC2182
4	烏斯丘(오사구)	BC2137
5	丘乙(구을)	BC2099
6	達門(달문)	BC2083
7	翰栗(한을)	BC2047
8	于西翰(우서한) 또는 烏斯舍(오사합)	BC1993
9	阿述(아술)	BC1985
10	魯乙(노을)	BC1950
11	道奚(도해)	BC1891
12	阿漢(아한)	BC1834
13	屹達(홀달)	BC1782
14	古弗(고불)	BC1721
15	伐音(벌음)	BC1661
16	尉那(위나)	BC1610
17	余乙(여을)	BC1552
18	冬奄(동엄)	BC1484
19	緹牟蘇(구모소)	BC1435
20	固忽(고홀)	BC1380
21	蘇台(소태)	BC1337
22	索弗婁(색블루)	BC1285
23	阿忽(아홀)	BC1237
24	延那(연나)	BC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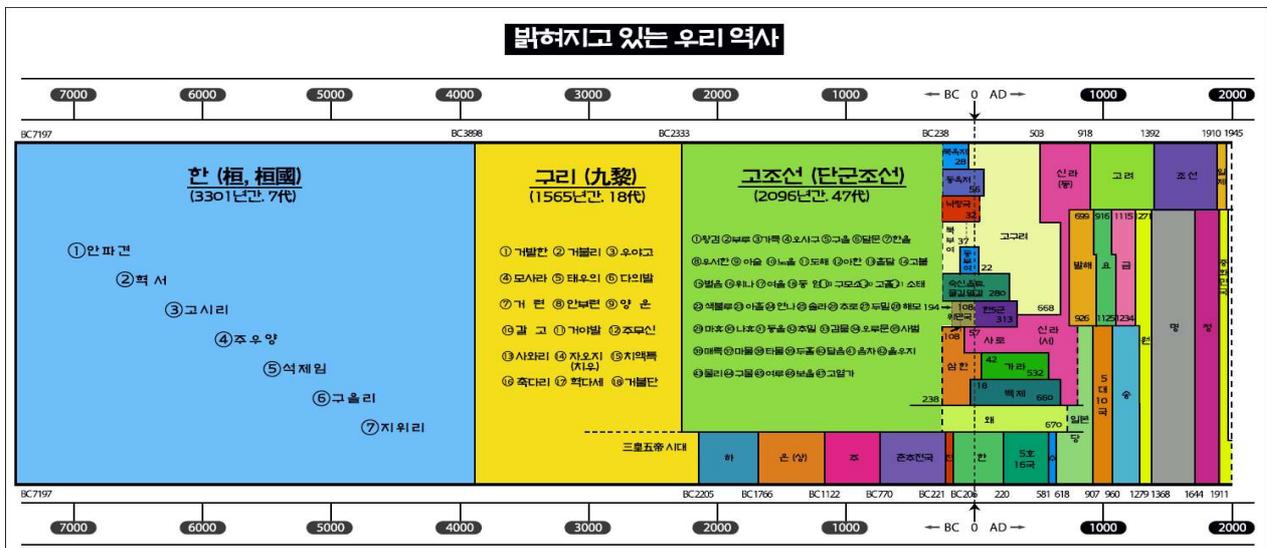
역대	제왕명	즉위년도
25	率那(솔나)	BC1150
26	鄒魯(추로)	BC1062
27	豆密(두밀)	BC997
28	奚牟(해모)	BC971
29	摩休(마휴)	BC943
30	奈休(나휴)	BC909
31	登岬(등을)	BC874
32	鄒密(추밀)	BC849
33	甘勿(감물)	BC819
34	奧婁門(오루문)	BC795
35	沙伐(사벌)	BC772
36	買勒(매륙)	BC704
37	麻勿(마물)	BC646
38	多勿(다물)	BC590
39	豆忽(두홀)	BC545
40	達音(달음)	BC509
41	音次(음차)	BC491
42	乙于支(을우지)	BC471
43	勿理(물리)	BC461
44	丘勿(구물)	BC425
45	余婁(여루)	BC396
46	普乙(보을)	BC341
47	古列加(고열가)	BC295 ~BC238

* 단군세기의 저자 **행촌 이암**

- 고려 당대 최고 명필가(1297년~1364년)
-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참모총장 역임
- 강화도에서 단군세기를 집필
- 제자가 고려 삼은중 하나인 목은 이색임
- 행촌 3서 : 단군세기, 농상집요, 태백진훈
→ 태백진훈은 조선조 5백년 금서(禁書)



상기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연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연표는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하하기 위해 조작해 놓은 것이며 실제 역사는 우리가 주도가 되는 역사이다.

* 조작된 연표

	B.C 2333	1122	194	108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108~AD313)

* 실제 연표

	B.C 7197	3897	2333	238	58
삼신 (마고)	한국 (7대 3301)	배달국 (18대 1565년)	고조선 (47대 2096년)	북부여	고구려

단군조선 이전에 한국과 배달국의 4866년의 역사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면 우리역사는 무려 9210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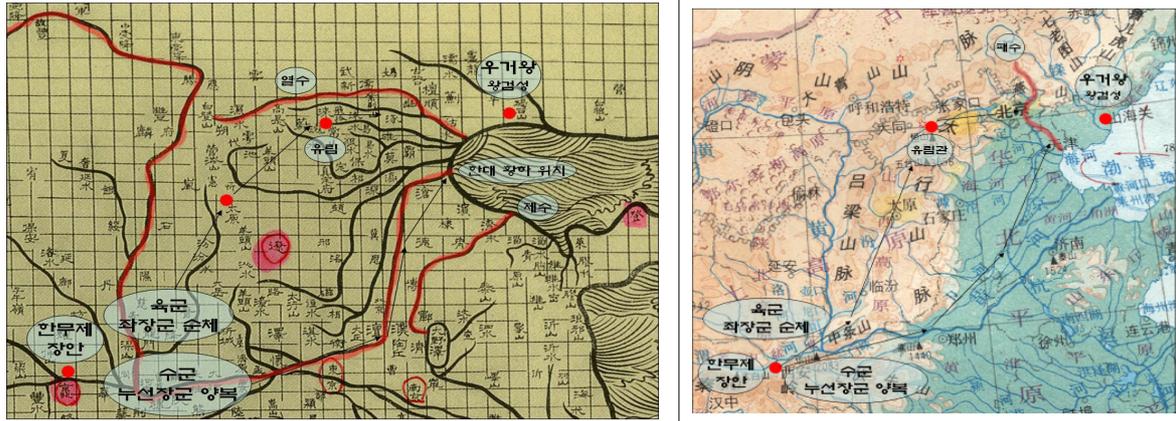
기원전 1122년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록에도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고조선은 3한으로 분할 통치를 하였는데 진한은 단군이 직접 통치를 하였고 마한, 변한은 각각 왕을 두고 통치를 하였는데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고조선망 중 변한땅 서화에 망명을 와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자의 무덤이 현재 산둥성 하택시 조현에 있으며 기자 사당은 하남성 학벽시 기현에 있다. 한반도에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반도사관 주입을 위해 조작한 것이다.

기자의 무덤 위치



기원전 194년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공격한 나라도 변한의 기준왕이며, 그지역도 하북성 유역이었고,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위만의 손자 우거왕과 전쟁을 한지역 역시 하북성 일대였고 우거왕은 한무제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

변조선 우거왕과 한나라 무제의 분쟁도



모든 것은 일제가 35년 동안 반도사관을 이땅에 심어주기 위해 조작한 역사인 것이다.

2) 중국

중국이 동북공정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고조선의 역사보다 128년 짧은 자신들의 역사의 기원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역사상 유명인들을 차용하여 조작한 역사이다.

이제 조작한 역사가 들통날까봐 두려워 각종공정을 통하여 방어에 나선 것이다.

B.C3500	2205	1766	1122	770	221	206	
삼황오제	하	은	주	춘추전국	진	한(전·후) (206~220)	

아래에 다시 표를 보면 '국역조제왕개람'에 나오는 '삼황오제'는 모조리 우리민족의 후예로 나온다. 규원사화 등 민족사서에 나오는 역사를 이땅에서는 부정되고 있지만 이미 중국과 일본은 연구를 끝내고 공식논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구분	이름	시 기	비 고
삼황	태호 복희	B.C 3500년대	배달국 5세 태우의 한응의 12아들중 막내아들
	염제 신농	B.C 3200년대	배달국 8세 안부런 한응때 신하였던 소전의 아들
	황제 헌원	B.C 2698~2598	배달국 14세 치우한응때 제후의 아들로 소전의 먼 후손
오제	소호 금천	B.C 2598~2515	헌원의 아들
	전욱 고양	B.C 2514~2437	헌원의 손자
	제곡 고신	B.C 2436~2367	헌원의 증손자
	제요 도당	B.C 2357~2284	고신의 막내아들
	제순 유우	B.C 2284~2224	장님인 고수의 아들, 부도지에는 유소(有巢,有戶氏) 장남

3) 일본

동양 삼국중 가장 짧은 2673년에 불과한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B.C660

	왜(660~AD670) ~ 일본(AD670~현재)
--	-----------------------------

4. 중국의 동북공정 실제

지난 2002년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만주 즉 동북삼성(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유역을 지배했던 고구려가 중국 변방 역사라 주장을 하여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즉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는 지금의 중국 땅에 세워졌고,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멸망한 뒤에는 유민들이 대부분 중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국역사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저들이 스스로 기록한 중국의 역사책(25史)을 보아도 그 허구성이 자연스럽게 들어난다.

중국 정사인 25史의 기록 내용을 보면 고구려를 후한서부터 구당서까지는 동이열전(東夷列傳)으로 분리 기록하여 한족과 분명히 구분을 하였고, 구오대사(舊五代史)부터는 외국열전(外國列傳)에 기록하여 한족의 역사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 역사라고 근거도 없이 우기니 황당한 노릇 아닌가 ?

-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기록된 나라 : 부여, 읍루, 고구려, 동옥저, 예, 삼한, 왜
-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기록된 나라 :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유구
- 구오대사(舊五代史) 외국열전(外國列傳)에 기록된 나라 : 고(구)려, 발해말갈, 흑수말갈 등

후한시대 허신이 기록한 설문해자에 나오는 '이(夷)'에 대해 살펴보면, '동방지인(東方之人)' 동방에 사는 민족이며, '대궁(大弓)' 큰 활을 사용하는 민족이며, '이속인(夷俗仁)' 이는 어진 것을 의미하며, '인자수(仁者壽)' 인자는 장수하고, '군자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 군자들이 사는데 죽지 않는 나라이고, '공자욕거구이(孔子欲居九夷)' 공자도 구이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쪽 오랑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스스로 동쪽 오랑캐라고 비하하고 있을 뿐이다.

* 설문해자 : 중국 후한(後漢)시대 A.D. 100년경 허신(許慎)에 의해 완성된 자서(字書). 모두 15편, 9,353자의 문자 해설

중국은 약 2천년 동안을 고구려는 동이 즉 우리민족의 역사라고 일관되게 사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 와서 갑자기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작업을 통하여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 주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한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의 통제권 약화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55개 소수민족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동북삼성은 요·금·원·청의 중심무대로 그 중심을 이루는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언어와 습관이 동일하고 단결력이 강하며 현존하고 있는 모국에 대한 동경심이 강하기 때문에 연방분리(聯邦分離)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북방민족인 요·금·원·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대륙 전체를 영향권 하에 두었던 광대한 역사를 자랑한다. 명나라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북방에서 발원하였던 나라들이다. 동북삼성이 흥기하면 어떠한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을 저들도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알기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현재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 포함 여러개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화문명 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 2003년 ~ 현재 진행중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을 통하여 과거 전설이나 신화로 치부하였던 '삼황오제' 시대의 역사를 실재한 역사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중국역사를 1만 년으로 그 기원을 끌어 올리는 거대한 작업이다.

* 삼황 : 태호복희씨, 염제신농씨, 황제헌원씨

* 오제 : 소호 금천씨, 전욱고양씨, 제국고신씨, 제요도당씨, 제순유우씨

② 하·상·주 단대공정(夏·商·周 斷代工程) : 1996년 시작 ~ 2000년 종료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을 통하여 전한시대의 사가 사마천 조차 포기한 하·상·주 3대왕조의 역사를 복원하여 실재한 역사로 확정하였다.

하왕조는 기원전 2070년에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에 주왕조는 기원전 1046년에 건국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기존 학설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

* 2003년 펴낸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속론'에 보면 '고구려 민족은 염·황(염제·황제)씨족에서 유래했다'며 고구려인이 은·상씨족에서 분리된 것은 기원전 1600~13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나라는 고조선의 제후국이였다)

③ 서남공정(西南工程) : 1986년 ~ 현재 진행중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장학연구중심을 통하여 티베트 지방의 역사·지리·민족문제 등을 연구하여 한·장동원론(漢藏同源論) 즉 중국인인 한족(漢族)과 티베트의 장족(藏族)은 문화와 언어의 뿌리가 같다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티베트는 마고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우리역사의 근원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구리넷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 참고)

④ 동북공정(東北工程) : 2002년 ~ 2007. 2월 종료, 지방정부로 이양 세밀하게 추가 진행중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을 통하여 한반도 북쪽 만주지역 즉 동북삼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라는 말이다.

* 구체적 연구 과제로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동북변강 안정에 대한 영향 연구 등을 설정하였다.

⑤ 서북공정(西北工程) : 2002년 ~ 현재 진행중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을 통하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민족과 역사 및 영토주권 등을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황궁씨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곳이다.

중국(中國)의 각종 공정(工程) 현황



현재 국내 역사학자중에 중국의 각종공정의 최종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자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먼저 각 공정별 주요목적과 대응방안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중화문명 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중국 공산당은 '삼황오제' 시대의 역사를 실제한 역사로 복원하여 1만년 역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원인이 우리의 '역사계보'에 해답이 있다.

* 삼황 : 태호복희씨, 염제신농씨, 황제헌원씨

중국의 삼황이 모조리 우리민족(동이東夷)로 되어 있고 중국 역사가 우리에게서 분가해 나간 작은집이라 되어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 아닌가? 하여간 그래서 중국의 각종공정이 시작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국의 삼황의 역사가 모조리 우리(東夷)의 역사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호복희

중국 3황중 첫째인 태호복희씨는 바로 우리나라 두 번째 나라인 배달국 제 5대 태우의 한웅의 막내아들로 나온다.

* 배달국 제5세 한웅 태우의(太虞儀) (재위 B.C3511 ~ B.C3419)

- 1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막내가 '태호복희'
- 복희(伏羲)씨는 팔괘(八卦)를 만들고 천부경을 바탕으로 한역(桓易)을 지음
- 서쪽 제후가 되었다가 여동생 여왜(女媧)가 이었고 그 뒤를 이어 염제신농이 제후가 되었다.

→ 태호복희를 중국이 삼황오제의 제일 첫 번째 조상으로 차용해감

□ 염제신농

중국 3황중 두번째인 염제신농씨는 배달국 제 8대 안부련 한웅때 강수에서 군사를 관리 하던 신하 '소전'의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갔다가 온갖 진귀한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된 것으로 나온다.

* 배달국 제8세 한웅 안부련(安夫連) (재위 B.C3239 ~ B.C3167)

- 신하인 소전(小典)을 강수(姜水, 섬서성 장안유역의 강)에 보내어 군사를 감독하게 함.

- 이때 따라간 소전의 아들 신농(神農)이 주변의 온갖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됨. 태호의 여동생 여媧(女媧)의 뒤를 이어 신농이 제후가 됨. 강수에 살아 성을 강씨라고도 함.

→ 신농을 중국이 삼황오제의 두 번째 조상으로 차용해감

□ 황제헌원

중국 3황중 세번째인 황제 헌원(軒轅)씨는 배달국 제 14대 자오지(일명 치우) 한웅때 제후였는데 치우한웅에게 반역을 도모하였다가 실패한 안부련 한웅의 신하였던 소전의 후대 자손으로 나온다.

* 제14세 한웅 자오지(慈烏支) (재위 B.C2706 ~ B.C2598)

- 자오지 일명 치우(蚩尤)한웅, 붉은악마 도깨비 문양의 주인공 (귀면와)
→ 능이 산동성 동평에서 발굴되어 복원중
- 칠성력(七星曆)이 시작되었고 청구(靑丘:산동성)로 도읍을 옮김
- 사마천 사기에 동두철액(銅頭鐵額)의 주인공으로 나옴(청동으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 최근 중국이 삼황중에 태호복희를 빼고 치우한웅을 차용해가 자기들 3대 조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결국 중국의 삼황은 동이의 인물을 임의로 차용하여 만든 허구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민족사학(강호사학) 진영의 연구결과가 출판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한족이 90%, 나머지 10%를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수민족의 역사찾기가 시작되면 그 중심에 동이(東夷)가 있으니 허구의 중국 상고사가 들통날 것은 시간문제이니 각종 공정으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허겁지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조관 변경을 통한 상고사 재정립 작업이다.

□ 중국의 시조관 변화

○ 황제헌원 단일시조 : 기원전 104년 ~ 1980년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면서 황제 헌원씨를 시조로 기술한 이래 1980년대 초까지 자신들을 황제의 자손이라 주장하였다.

중국의 시조 헌원은 배달국 14대 치우한웅 시절 제후로 8세 안부련 한웅때 신하였던 소전의 먼 후손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 황제헌원, 염제신농 공동시조 주장 : 1980년말

1980년대 말부터 염제신농씨를 자신들의 선조 계보에 포함시켜 '염황자손(炎黃子孫)'으로 변경한다.

염제신농은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웅때 신하였던 소전의 아들로 강수(섬서성)에 군사감독을 갔던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주변의 각종 약초를 연구하여 동양의학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 황제헌원, 염제신농, 치우 3대 공동시조 주장 : 1990년 중반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자 하북성 탁록에서 헌원과 치열한 전쟁을 치룬 치우를 자기들 조상에 포함시켜 '염황치자손(炎黃蚩子孫)'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치우한웅은 배달국 14대 한웅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중국은 지난 2천년 동안 단 한번도 동이 배달국 14대 한웅을 동족이라 기록한 적이 없으며 동쪽 오랑캐의 악신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한순간에 중화민족의 3대 조상으로 봉안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발빠른 동이(東夷)의 상고사 흡수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그 완성을 보기에 이른다.

□ '삼조문화(三祖文化)'

중국 공산당은 1993년부터 황제, 염제, 치우가 다양한 중화문명을 일으킨 중화민족의 공동시조라 규정하고 이들 세 분을 통합의 상징으로 모시고 기리는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을 하북성 탁록에 건설하고 역사적 근원 통합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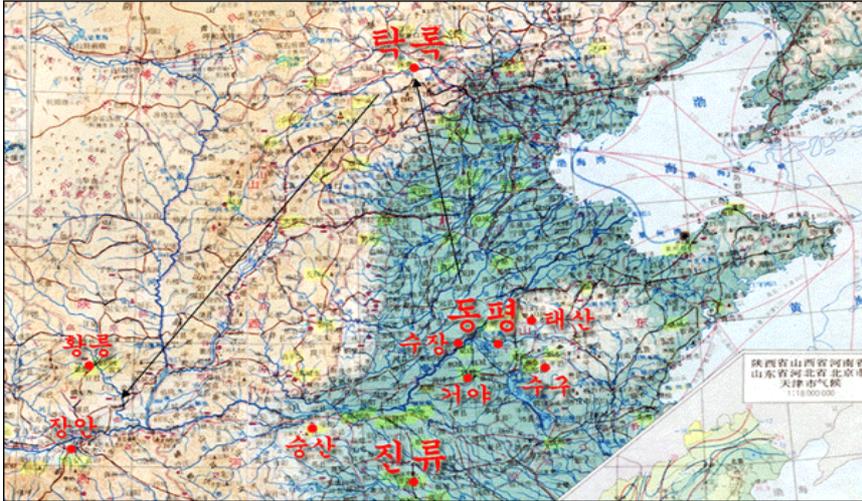
기가막힌 것은 처음에는 헌원당(軒轅堂)이라 하여 황제 헌원 단일시조를 기리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다가 염제신농, 치우제를 차례로 추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탁록에 조성한 거대한 공원의 이름은 '귀근원(歸根苑)'인데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종족적 계파를 초월하여 근원으로 회귀하면 '그 뿌리가 하나이다'라는 의미다. 그 안에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을 만들어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북성 탁록의 중화삼조당

귀근원	중화삼조당	(좌)치우, (중앙)현원, (우측)염제
		

치우한웅 관련 지도



- 동평 : 치우한웅의 묘가 있는 곳. 현재 복원이 완료됨
- 수구 : 제후의 아들 현원이 태어난 곳
- 탁록 : 현원과 전쟁을 하여 치우한웅이 현원을 사로잡은 곳
- 장안 : 현원이 유배를 간 곳
- 황릉 : 현원이 죽어 묻힌 곳
- 진류 : 치우한웅이 제위에 오른 곳
- 승산 : 소림사 뒤편 오유봉 달마동굴이 원래는 치우동굴 (소림사내력서에 기록)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삼조당을 건설한 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 황제헌원 : 한족의 시조
- 염제신농 : 동이족의 시조
- 치우한용 : 묘족의 시조

애석하게도 우리(東夷)에게서 분가해 나간 작은집인 중국은 헌원도 동이이고 신농도 동이이고 치우도 동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종가집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겪는 혼란 아니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는 동이(東夷)의 자손이다” 라고 말이다. 역사를 알면 이 얼마나 기가막힌 사실인가 ?

② 하·상·주 단대공정(夏·商·周 斷代工程) : 1996년 시작 ~ 2000년 종료

민족사서에 의하면 하·상·주나라는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 나타난다. 건국 자체도 단군조선이 개국된 B.C2333년 보다 128년 늦은 B.C2205년에야 개국을 한다.

③ 서남공정(西南工程) : 1986년 ~ 현재 진행중

민족사서에 의하면 티베트는 배달국 15대 치액특 한웅의 개척국이다. 그래서 일명 티베트 한웅이라고도 한다. 저들이 우리를 형제국이라 하는 이유를 아는 이 많지 않지만 역사적 근원으로 가면 형제국인 것이다. 굳이 수미산 마고대성 부도지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겠다.

④ 동북공정(東北工程) : 2002년 ~ 2007. 2월 종료, 지방정부로 이양 세밀하게 추가 진행중

결국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적은 고구려 역사 침탈이 아니다. 그 이전 한인, 배달, 단군조선의 역사까지 흡수하겠다는 야욕인 것이다. 재삼 설명은 생략한다.

⑤ 서북공정(西北工程) : 2002년 ~ 현재 진행중

신강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한국이 건국된 자리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천산산맥의 한텡그리산이나 박격달봉(배달봉) 그리고 투루판의 복희여와도 등은 마고와 황궁씨의 역사, 즉 우리민족의 혼이 서린땅이다.

카자흐스탄에 신강위그루자치구 분리독립운동 비밀본부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텡그리라고 한다. 즉 하늘백성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우리를 동경한다는 말이다. 스탈린이 강제이주시킨 고려인들이 정착한 곳도 바로 이곳 카자흐스탄이다.

지금도 분리독립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들은 고구려의 후손들이기도 하다.

5. 동북공정 대응방안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계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학계로서는 삼황오제의 역사를 실제한 역사로 복원하는 중국의 일만년 역사 복원 각종 공정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진본 규원사화 등에 수록되어 있는 일만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실재한 역사로 복원하여야 한다.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을 방문하시는 회원분들은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 홍보책자를 인쇄하여 주변에, 해외동포 등에게 알리는 일을 앞장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 자료다운받기 링크

http://www.coo2.net/bbs/zboard.php?id=con_m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44

새로운 국사책 작성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의로운 위정자가 앞장서서 노력하여, 마고(삼신) → 한인 → 한웅(배달) →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상고사를 완전 복원하여 새로운 국사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2세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대국민 역사 계몽활동이 필요하다.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각종 강연,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역사 계몽활동이 필요하다. 방송, 영화, 게임 등 가능한 매체는 모두 동원하여 우리 역사를 교육, 홍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의로운 누군가가 나와 행동해줄 것이라 믿는다.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일부내용 생략)

과연 누가 이 작업을 해 줄 것인가 ?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을 사랑하시는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장서 복원, 홍보, 교육작업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2007년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코 중단되지 않았으며 주체가 중앙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종료하였을 뿐,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더욱더 철저히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령성, 길림성 소재 각종 산성, 박물관, 기념품 등에는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문구가 차곡차곡 새겨지고 있다.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고구려 역사 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의 역사까지도 중국역사에 편입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미 길림성 왕청현에서는 만천성 국가삼림공원내에 높이 18m, 무게 500t의 석조 웅녀상을 건립하고 단군조차도 중국내 소수민족의 역사로 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단군조선의 역사도 중국역사에 편입하겠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역사로 편입되면 대한민국 한강이북의 역사가 중국역사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하면 안된다.

간략한 교육자료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숨어있는 무서운 의도를 소개해 보았다. 더 자세한 자료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본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 역사를 지켜주지 않으며, 절대 복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일만년이 넘는 천손민족의 적통들입니다. 그 역사는 절대 비켜갈 수 없으니 천손민족의 역사복원에 부디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 복원을 위하여 !

마고기원 11,150년 음력 10월 27일(양력 11월 29일)
우리역사의 비밀, 구리(句莚)넷 (www.coo2.net) 송준희